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아우모비오 코리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포용적 사회 가치 실현

- 강동윤 대표이사 사장 및 임직원 80 여 명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원사로 참여...5km 부문 완주
- ‘아우모비오 함께 완주상’ 마련해 참가자 간 유대감 증진 및 화합 도모

서울, 2026 년 6 월 15 일. 기술 및 전장 기업 아우모비오 코리아가 지난 13 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 12 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이동권 개선과 건강 증진, 장애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올해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와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실명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을 맡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한독 커뮤니티 역대 최대 규모인 1,20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우모비오 코리아 또한 KGCCI 의 주요 회원사로서 대회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우모비오 국내 임직원 80 여 명은 지정된 5km 코스를 완주하며 가치있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우모비오 코리아는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더욱 즐겁게 대회에 임하며 유대감을 다질 수 있도록 ‘아우모비오 함께 완주상(AUMOVIO Together Finish Award)’을 마련해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8 명 이내로 조를 이룬 이들은 결승선을 함께 통과하며, 아우모비오 브랜드 아이템을 활용한 시그니처 포즈로 ‘원팀(One Team)’ 메시지를 표현하는 등 활기차고 유쾌한 현장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우모비오 코리아 강동윤 대표이사 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뜻을 모은 이번 대회는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함께 완주하는 기쁨을 나눈 축제의 장이었다”며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아우모비오의 ‘비전 제로(Vision Zero)’ 목표 아래, 포용적 가치를 실천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한편, 아우모비오 코리아는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사업장 인근 지역 환경을 정화하는 ‘플로깅 데이’ 행사를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한 ‘캠퍼스 데이’ 및 ‘캠퍼스 리크루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우모비오(AUMOVIO)는 2025 년 9 월 분사를 기점으로 독립 기업으로서 새롭게 출범하며, 기존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 부문의 사업을 이어간다. 아우모비오는 기술 및 전장 기업으로서 모빌리티의 안전성, 흥미성, 연결성,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센서 솔루션, 디스플레이, 제동 및 컴포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플랫폼, 보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모비오는 2025 년 185 억 유로(한화 약 32 조)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0 여 개 지역에서 약 82,000 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

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아우모비오 코리아㈜

+82-70-7914-4942

Hyukchul.choi@aumovio.com

Press release

사진자료/캡션



사진자료 1_아우모비오 코리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포용적 사회 가치 실현

‘제 12 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아우모비오 코리아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